

만4세 하루 일과 별 사례 및 부모역할

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	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	부모역할
일어나기	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유아가 떼를 쓰며 일어나지 않을 때 - “OO가 게으름뱅이구나”, “아침부터 울면 OO가 잡아간다.”	- 유아의 정서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하루 일과가 얼마나 즐거울지에 이야기를 해 준다. - 유아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‘별명’이나 ‘애칭’을 붙여 말하지 않는다. 예) 게으름뱅이, 고집쟁이 등
식사 시간	유아가 돌아다니거나 놀이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	- 유아는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. 또 한 부모는 유아에게 가족들이 식사를 다 할 때 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. 유아가 식사 자리를 떠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(아프거나 위험할 때 등)에 허용하고, 다른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.
	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는 유아에게 건강을 해친다며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위협해서 설명하는 경우 - “너 이렇게 안 먹으면 키 안 크다.” - “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똥보 된다.”	-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, 각각의 음식 맛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하면서 식사한다. - 부모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. 그렇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을 경우 유아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부모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. - 무엇을 먹고 싶은지, 먹을 수 있을지 유아에게 물어보고 메뉴를 구성한다.
외출 준비	공원에 나가 놀이하려고 할 때, 아이를 조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 - “너 공원에서 놀이할 때 조심해야 해. 그네나 미끄럼틀 다 위험하니 규칙에 따라 놀이해. 안 그러면 엄마 다음부터 너랑 공원에 나오지 않을 거야.” - “너 혼자 막 놀면 엄마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릴 거야.”	유아는 자신의 신체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놀이할 수 있다. 부모는 안전을 위해 유아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.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아는 욕구가 앞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. 유아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놀이할 때는 ‘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네가 많이 아파. 엄마는 그게 걱정된다’며 다시 한 번 놀이규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.
	부모가 외출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는데, 유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준비하지 않을 때 - “어서 옷 입어! 아직도 엄마가 입혀줘야 해? OO는 네 나이 때 혼자 옷 다 입었어.”	양육 과정에서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유아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.